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미 내구재 주문 줄었다...항공기 주문 감소로
- Bloomberg: '미국인 40%, 실질 임금 줄었다'
- WSJ: 트럼프 정치적 입지 불변...경제 회복 인식으로

[미국 금융]

- Bloomberg: BofA, 미 증시 버블 리스크 경고

[물류]

- WSJ: 무역 불확실, 임대 약세로 창고 임대 거래 둔화

[무역 전쟁]

- YahooFinance: 관세 합의한 미일, 대미 투자율 수익 배분 놓고 이견차
- WSJ: 미 기업들, 관세로 가격 인상 준비한다
- WSJ: 트럼프의 중국 대응은 '협상 모드'로 바뀌고 있다

[오일]

- Bloomberg: 유가 하락세...미 무역 낙관론 약화, 달러 강세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기아, 미국 판매 전략 재편...관세 대응 위해 인센티브 삭감
- WSJ: 항공사들 힘든 올해 속 델타와 유나이티드는 선전
- Bloomberg: Lyft, 내년 미국 내 Benteler 자율 주행 셔틀 출시
- WSJ: 에어비앤비, 서비스 방식 변화 성공 가능할까?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WSJ: U.S. Durable Goods Orders Sink on Lower Aircraft Orders 미 내구재 주문 줄었다...항공기 주문 감소로

- 자동차, 비행기, 전자제품 등 3년 이상 사용하는, 이른바 내구재 전체 주문이 6월에 5월보다 9.3% 감소했다. 오늘 금요일 연방 상무부 발표.
- 5월의 조정 수치 16.5%에 비해 큰 감소 폭이다. 주로 보잉사의 주문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 6월에 운송장비는 22.4% 감소했으며 비국방 항공기 주문은 51.8%로 크게 줄었다.

WSJ 기사

Bloomberg: More Than 40% of Americans See Decline in Real Pay, Indeed Says

‘미국인 40%, 실질 임금 줄었다’

- 일자리 조사 기관 Indeed에 따르면 미국인 40% 이상의 임금이 인플레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중산 및 저소득층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큰 그림으로 볼 때 이 기관의 추적 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 임금 성장은 여전히 인플레보다 앞서고 있지만 그 차이는 지난 12개월간 가장 작은 폭으로 줄고 있다고 이 기관은 어제 목요일 밝혔다.
- 구체적으로 10명의 근로자 중 6명의 임금은 생활비보다 늘고 있지만 나머지 4명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Bloomberg 기사

WSJ: Resilient Trump Lifted by Improved View of the Economy, WSJ Poll Finds 트럼프 정치적 입지 불변...경제 회복 인식으로

- 월스트리트 저널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경제가 회복된다고 인식하는 가운데 트럼프의 정치적인 입지는 여전히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 유권자들이 미국의 방향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대통령직 지지율은 46%로 나타났다.
- 응답자의 47%는 미국 경제가 아주 좋거나 좋다고 응답해 이 비율은 조사가 시작된 2021년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다.

WSJ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BofA's Hartnett Renews Warnings on Bubble Risks for Stocks BofA, 미 증시 버블 리스크 경고

- 미 금융 규정이 완화되고 통화정책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증시에 버블 리스크가 있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경고했다.
- 이 기관의 전략가 Michael Hartnett에 따르면 글로벌 정책 금리가 작년에 4.8%에서 4.4%로 떨어졌으며 향후 12개월에 3.9%로 추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 그는 계속해서 커지는 주식 개인 거래, 유동성, 변동성 등으로 버블이 경고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물류]

WSJ: Trade Questions, Slow Leasing Hold Back Warehouse Dealmaking

무역 불확실, 임대 약세로 창고 임대 거래 둔화

- 예전 분기에는 두 자리 성장을 보여준 산업용 부동산 거래 규모가 올해 2분기 들어서 정체되고 있다.
- 트럼프의 관세 정책 시행으로 창고 임대 투자자들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 임대 창고 공실률이 7.1%로 상승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새로운 관련 건축은 감소했다.

WSJ 기사

[무역 전쟁]

YahooFinance: US, Japan differ on trade-deal profits; Trump raises tariff baseline rate

관세 합의한 미일, 대미 투자율 수익 배분 놓고 이견차

- 일본은 미국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에 대미 투자액을 5천5백억 불로 하고 쌀과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 그런데 미국 측은 대미 5천5백억 불 투자로 인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갖기 를 원하는 반면, 일본 측은 대미 투자액 규모만큼 수익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일본과의 관세 합의가 트럼프는 새로운 기본 관세율 (15%)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트럼프는 관세 유예 마감일 8월 1일 전에 유럽 연합과의 관세 합의 가능성은 50%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YahooFinance 기사

WSJ: Trump's Tariffs Are Being Picked Up by Corporate America

미 기업들, 관세로 가격 인상 준비한다

- 트럼프 관세로 인해 미국 정부는 세수 5백50억 불을 올해 거두고 있는 데에 반해, 미 기업들이 비용을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
- 미 기업들은 관세 비용을 스스로 흡수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들은 장난감 등 일부 수입 제품 관세에 따른 인플레 상승으로 가격 인상을 계획 중이다.
- 일부 해외 대미 수출 업체들도 일부 가격을 인하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외국들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WSJ 기사

WSJ: Trump Is Shifting to Dealmaking Mode on China

트럼프의 중국 대응은 ‘협상 모드’로 바뀌고 있다

- 트럼프는 중국 무역 협상을 경제적인 거래로 바꾸고 있다.
- 예컨대 미국은 중국에 미국의 기술을 더 많이 사도록 권유하고 있다.
- 이와 관련 중국은 미국의 수출 통제를 완화하기 위해 미국의 농산물과 에너지 추가 구매를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한마디로 다음 주 열리는 양국의 관세 협상과 관련 백악관은 중국에 비즈니스 거래 방식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WSJ 기사

[오일]

Bloomberg: Oil Falls as US Trade Deal Optimism Wanes, Dollar Strengthens
유가 하락세...미 무역 낙관론 약화, 달러 강세

- 미국이 주요 무역국과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이 약해지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원유 가격이 하락했다.
- 미국이 유럽과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 50%라고 발표된 이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 하락해 6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는 낙관적인 전망과는 대조적이다.
- 원유 가격은 유지되었지만, OPEC+의 공급 증가로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며 올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Kia Reshapes US Sales Strategy, Cuts Incentives Over Tariffs
기아, 미국 판매 전략 재편...관세 대응 위해 인센티브 삭감

- 기아자동차가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에서의 판매 전략을 재편하고 고객 인센티브를 줄일 예정이다.
- 조지아주 공장 생산 차량은 미국 내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멕시코나 중동에서의 생산 차량은 타 지역으로 전환된다. 한국 생산 차량은 캐나다로 보낼 예정이다.
- 기아자동차는 미국 내 가격 인상보다는 고객 인센티브를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정성국 전략 투자 담당 상무는 이를 통해 연간 약 4억 3,50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 기아차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24% 감소해 2조 8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예상치인 3조 원에 미치지 못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으나 관세로 인한 손실은 약 7,860억 원에 달했으며, 이 또한 원화 약세로 일부 타격을 줄인 것이다.

Bloomberg 기사

WSJ: Airlines Are Having a Bruising Year. Delta and United Are Doing Better.

항공사들 힘든 올해 속 델타와 유나이티드는 선전

- 소비 심리 위축과 관세 여파로 항공사들이 수익 전망을 철회하거나 항공 요금을 인하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델타와 유나이티드항공은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강점을 바탕으로 업계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다.

- 아메리칸 항공과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수요가 가장 약한 미국 항공편에 집중한 탓에 더 큰 타격을 입어 회복이 더딘 상태이다.
- 현재는 소비자와 기업들이 다시 여행 계획을 세우는 데 점점 자신감을 가지면서 항공사들은 하반기 노선 일정을 재조정하고 수익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항공사 경영진들은 여행 수요 약세가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회복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WSJ 기사

Bloomberg: Lyft Plans to Launch Benteler Autonomous Shuttles in US in 2026

Lyft, 내년 미국 내 Benteler 자율 주행 셔틀 출시

- Lyft가 Benteler과 협력하여 2026년 말 미국에서 자율 주행 셔틀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는 자율 주행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쟁사 우버를 따라잡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 Lyft는 이 무인 셔틀이 처음에는 공항 및 도시와 협력하여 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Lyft는 최근 미국 공항에서 공동 승차 서비스를 다시 실시한 바 있다.
- 또한, Lyft는 차량 대수 확장을 위해 Benteler의 자매 회사 Benteler Trading International과 협력하여 수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도 조달할 예정이라 밝혔다.

Bloomberg 기사

WSJ: Can Airbnb Redefine Travel Again?

에어비앤비, 서비스 방식 변화 성공 가능할까?

- 에어비앤비 공동 CEO Brian Chesky는 회사를 단순한 숙박 플랫폼이 아닌, 모든 여행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한다.
- 이를 위해 에어비앤비는 '체험'과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여행객들은 하와이 서핑 레슨이나 트러플 채취 체험 등 다양한 옵션을 경험할 수 있다.
- 그러나 이 서비스는 자동화와 확대가 어렵고, 수익성도 떨어지며, 호스트에게는 인센티브가 부족할 수 있다. 또한, 여행자들은 주로 항공편과 숙박을 예약하고 체험은 후순위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 유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 공동 CEO Dave Stephenson은 이 사업이 수십억 달러 규모로 성장해 숙박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TD Cowen의 분석가 Kevin Kopelman은 에어비앤비가 최근 몇 년간 체험 사업에서 고전해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낮은 것이라고 전했다.

WSJ 기사

[보고서]

트럼프 "관세 15~50%로...EU와 무역 협상 심각히 진행 중"

백악관 "타코는 헛소리...각국·기업, 충격 흡수하기 위해 적응 중"

월스트리트 종론은 "결국은 이번에도 또 부과 연기할 것"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지 않는 교역 상대국들에게 8월 1일부터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평온한 이유에 대해 백악관과 월스트리트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고 미국 CNN방송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금까지 무역협상 합의를 한 교역 상대국은 영국,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 6개국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유럽연합(EU), 인도 등 나머지 나라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8월 1일부터 고율의 '상호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